

근대적 주체의 시선에 포착된 타자들

……염상섭, 「만세전」의 경우

박정애

국문초록

이 글은, '여성의 눈으로 정전 다시 읽기'의 일환으로 우리 근대문학사의 걸작으로 평가되는 염상섭의 「만세전」을 “저항하는 독자”로서 다시 읽은 결과이다.

「만세전」이 반성적 사유를 하는 식민지 지식청년의 발견여행으로 진정성의 측면에서 뛰어난 성취를 거둔 걸작이라는 數多한 비평들은 「만세전」에 리얼리즘 정전의 권위를 부여해 왔다.

이 논문은, 주인공의 旅路와 그 여로에서 발견하는 식민지의 현실, 그러한 발견을 통한 주인공의 각성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주인공의 여로를 덮고 있는, 근대의 普遍者로서의 개인주의적 남성의 시선에 주목했다. 모든 시선은 위치 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근대적 개인'이 '근대적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그 관찰의 결과물을 충실하게 기록했기에 「만세전」은 뛰어난 '근대문학'이 될 수 있었다. 이 글은, 이러한 근대적 주체의 시선이 가지는 편파성(partiality)을 증명하고자 했다. 「만세전」의 시선은 크게 '자기'를 향한 시선과 '타자'를 향한 시선으로 대별되는데,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판단 유보도 가치 중립도 아닌, 명백히 가치 편향적인 하나의 판단행위이며 하나의 포지션 정하기였고, 타자를 향한 시선의 본질적인 특성은 그것이 여행하는 자의 시선으로서 관계에 대한 책임성을 거세한 시선이라는 것이었다. 이인화는 아내, 올라, 정자 등 여자들에게 대해서는 물론이요 자식에 대해서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이인화는 자신을 얻어매는 그러한 계류를 탈출하여 보다 쉽사리 근대적 개인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존재에게 목숨과 젖을 주는 몸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아를 構造하는 심리적 성향을 가진 여성은 자신의 몸 자체가 계루이기 때문에 데카르트적 현존을 가정하기 위해서는 남자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뒤틀린 경로를 거쳐야 한다.

서구적 근대의 한 특징으로서의 '진리에의 의지'는 『만세전』에서는 無知의 무덤에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新생에의 의지'로 나타난다. 정자와 이인화 같은 문학의 徒의 본령이라는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을 찾아가고, 이것을 세우는 것〉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내의 죽음과 생명의 배제였다. 이인화가 무덤 속에서 빠져나가 찾고자 하는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이란 아내의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과 결코 일치할 수 없는 것인데도 이인화의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이 마치 조선 사람 모두(혹은 인류)의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과 일치하는 것처럼, 그러한 생활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인화의 여정이 마치 조선 사람 모두(혹은 인류)의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을 위해서인 것처럼 이 작품의 서사적 관점은 독자를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을 추구하는 남성 보편자'의 정체성 속으로 호출한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여성 혐오(misogyny)에 기반한 호출임에도, 근대의 新生이 본질적으로 생명과 여성에 대한 천대 위에서 이루어짐으로 해서 끝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근대인의 삶은 〈진리 없이 빈손으로 남게〉 된다. 〈여자인 진리의 비진리성에 대한 이름〉이라는 해체주의자 J. 데리다의 통찰은 이런 맥락에서 빛을 발한다.

1. 성숙한 남성의 시선과 단 하나의 진리

대략 1960년대 말부터 서구 페미니즘 비평은 대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정전으로 평가받는 문학 텍스트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이러한 작업은, 여성 작가에 대한 재발견 혹은 재평가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남성적인 서사적 관점에 수동적으로 포섭되지 말고 저항하는 독자가 되라고 한 이론가는 주디스 페터리(Judith Fetterley)다. 페터리는 『저항하는 독자(the Resisting Reader)』의 서문에서 〈독자이든 교사이든 학자이든 간에 여성들은 스스로를 남성으로 생각하고 교육받으며, 자신을 남성의 관점과 동일시하고 남성의 가치체계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지고 있다. 그 가치 체계 중의 하나가 여성 혐

오인데도 말이다¹⁾라고 주장한다.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가 지향하는 - 대개는 가부장제의 유지·존속에 기여하는 - 가치들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힘은 서사적 관점이 지니는 '호출'(interpellation)²⁾의 능력이다. 독자는 언어로 된 텍스트를 읽으면서 어떠한 정체성 속으로 불러 들어간다. 이 능력에 저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성이 자신을 혐오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이 글은 '여성의 눈으로 정전 다시 읽기'의 일환으로서 우리 근대문학사의 걸작으로 평가되는 작품들 중 염상섭의 『만세전』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필자가 살펴본 바, 『만세전』이 뛰어난 작품이라는 데에 異見을 보이는 기존 연구는 없었다. <식민지 시대를 통틀어서 아니, 한국 근대 문학사를 통틀어서 이 작품 오른쪽으로 나설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³⁾는 평가에서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 있었을 뿐이다.

『만세전』이 <한 동경 유학생의 귀국여행기를 통해서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을 생생하게 묘파한 기념비적 업적>이요 <전세계 피압박민족해방운동의 선구로 되는 3·1운동이 왜 폭발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절실하게 묘파한 가장 뛰어난 문학적 보고>이지만, 다만 <표면적인 굴종의 밑에 숨어 있는> 민중의 <심상한 분노>⁴⁾를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최원식의 평가는 리얼리즘적 가치에 입각한 품평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 선영 역시 『만세전』이 <주인공을 통하여 민족의 현실에 상응하는 일정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고 그 시각이란 <자유와 진실을 추구하는 기본 자세 아래 식민지 통치자의 수탈과 억압, 우리 민족의 자기상실적인 무자각과 허위로

1) 팸 모리스, 『문학과 페미니즘』(문예출판사, 1997), p.58에서 재인용

2) 언어가 주체를 정체성 속으로 불러들이는 방식을 설명하는 알튀세의 개념이다.

3) 韓基, 「『만세전』의 길을 좇아서: 서울에서 동경까지」,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편, 『염상섭 문학의 재조명』, (새미, 1998), p. 273

4) 崔元植, 「식민지 지식인의 발견여행」, 『만세전』(창작과비평사, 1987), pp.173~190.

빛어진 왜곡된 현실을 자각하여 개조하려는 의지에 초점이 놓여 있⁵⁾는 진보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다는 평가를 내린다. 요컨대 「만세전」이 반성적 사유를 하는 식민지 지식청년의 발견여행으로 진정성의 측면에서 뛰어난 성취를 거둔 걸작이라는 이러한 數多한 비평들은 「만세전」에 정전의 권위를 부여해 왔다. 후속 연구들 또한 논점은 다양하지만 크게 보아 그러한 리얼리즘 정전 숭배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주인공의 旅路와 그 여로에서 발견하는 식민지의 현실, 그러한 발견을 통한 주인공의 각성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주인공의 여로를 덮고 있는, 근대의 普遍者로서의 개인주의적 남성의 시선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시선이 어디를 선택하여 무엇을 위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 누구의 눈이 가려져 있고 누가 해석하는가의 문제를 論究할 것이다. 모든 시선은 위치 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문제는 기존의 연구들이 그 점을 지적하지 않음으로써 성숙한 남성의 시선이야말로 보편적이며 그의 행적은 저 어딘가에 있을 단 하나의 진리를 탐험하기 위한 여로라는 가설에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2. 길을 덮은 시선

「만세전」은 여로형 소설이다. 김윤식은, 이 작품의 명백한 소설적 구조는 한마디로 길(旅路)이며 철로와 연락선의 線的 긴장이 작품구조로 버티고 있었기에 반영론적 관점에서의 칭송 일변도의 평가들도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한다.⁶⁾ 동경에서 고베(神戸)로, 시모노세끼(下關)로, 부산으로, 김천으로, 서울로, 다시 동경으로 길은 이어지고, 그 길을 따라 풍경도 사람살이의 모습도 바뀌어서 나타난다. 길 위의 그러한 삽화들을 배열한 것이 「만세전」의

5) 李善榮, 「시각의 진보성과 회고성」, 『廉想涉全集』(민음사, 1987), p.392

6) 金允植, 『廉想涉의 小說構造』, 『廉想變』, (文學과知性社, 1995), pp. 45~51 참조.

구성적 특징이다. 최원식은 <느슨하게 묶여진 **삽화들을** 통어하는 구심점이 바로 고뇌하는 주인공의 의식>이며, <이처럼 진지한 주제적 관심이 이 여행기의 전체 **삽화들을** 긴밀하게 죄고 있다>⁷⁾고 본다. 주인공의 의식 내지는 진지한 주제적 관심을, 이 글에서는 '시선'으로 대치하여 분석한다. 동경에서 출발하여 다시 동경을 향해 출발하기까지 주인공의 여로를 덮고 있는 것은, 다른 감각이 아닌 시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근대는 시선이 과잉 발전된 시대이다. 일찍이 니체는 근대의 시선 과잉에 대하여 <근대인은, 말하자면 영원히 굶주린 자이며, 환희도 힘도 모르는 비평가이며, 결국은 도서관원, 인쇄 교정자이며, 책의 먼지와 활자의 오식으로 언젠가는 눈이 멀 알렉산드리아적 인간인 것이다>⁸⁾라고 비유적으로 갈파한 바 있다. 근대를 만들어낸 것은, 지리상의 '발견'을 포함한 여러 과학적 '발견'이었다. <전통적으로 주체의 시선은 주체를 대상과 분리시켜 주체가 대상에 대하여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능력>⁹⁾의 상징이었다. 근대의 시선은 자기와 다른 곳, 혹은 다른 것을 발견하면서 그들과 자기를 분리하고 그들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동양의 근대는 서구에 대한 충격, 곧 서구 문물에 대한 시선의 충격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근대적 개인'이 '근대적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그 관찰의 결과물을 충실하게 기록했기에 『만세전』은 뛰어난 '근대문학'이 될 수 있었다. 이 글은, 이러한 근대적 주체의 시선이 가지는 편파성(partiality)에 주목한다. 주체의 시선은 몸을 통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몸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편파적인 유기체다. 페미니스트 생물학자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는 우리의 <몸은 물적인 몸이면서 언어적인 몸이며, 물질성과 언어성이 합친 존재(material-semiotic entity)>¹⁰⁾라고 말한다. 그러

7) 최원식, 위의 책, p.177

8) 프리드리히 니체, 김대경 역, 『비극의 탄생』, (청하, 1996), p.118

9) 조주현,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2000), p.279

10) 조주현, 위의 책, p.277

한 몸을 통하여 주체의 시선에 비추어진 모든 사물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시선에 의해 번역된 사물이다.

『만세전』의 시선은 크게 '자기'를 향한 시선과 '타자'를 향한 시선으로 대별된다. 여기서의 자기는 個我로서의 '나'이자, 그 個我和 불가분의 관계로 묶여 있는 집단 정체성으로서의 조선이기도 하다. 타자는, 개아로서의 나에 대응하는 타 조선인들이자 여자들이기도 하고, 집단정체성으로서의 조선에 대응하는 일본이자 서구이기도 하다.

1) 자기를 향한 시선

자기를 향한 시선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對自的 자아를 확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것을 두고 김윤식은 〈이른바 판단의 유보 또는 판단의 중립성〉¹¹⁾이라고 하면서 타자에 대해서는 물론이요 자기에 대해서도 반성적인 시각을 가진다는 의미에서의 이른바 中立性은 또한 작가의 〈어른다움〉¹²⁾이라고 판단한다. 김윤식의 용어인 〈어른다움〉을 정호웅은 〈판단 유보의 세계를 창출함으로써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소설 세계를〉 여는 〈겸의 시각, 성숙한 남성의 문학〉¹³⁾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판단 유보 혹은 판단의 중립성이 과연 어른다움이나 성숙한 남성적 사유의 특성인가. 달리 말해 어른 혹은 성숙한 남성의 시선은 과연 가치 유보적이며 중립적인가. 그리고 소위 '중립성'이란 어떠한 성격을 가진 위치 정하기(positioning)인가.

자기를 향한 이인화의 바라봄은, 행위자(agent)로서의 자아를 대상화하는 또 다른 자아의 시선에 의해 이루어진다.

11) 김윤식, 위의 책, p. 46

12) 김윤식, 위의 책, p. 48

13) 정호웅, 「한국 근대소설과 자기반성의 정신」, 『문학사와 비평 연구회 편: 염상섭 문학의 재조명』, (새미, 1998), p. 188

① “그러나 문제는 선(善)도 아니요 악(惡)도 아닌 그 어름에다가 발을 걸치고 있는 것이다. 죽거나 살거나 눈 하나 깜짝거리지도 않으면서 하는 공부를 내던지고 보러 간다는 것이 위선(僞善)이다. 더구나 여기 술 먹으러 오는 것을 무슨 큰 죄나 짓는 것같이 망설이는 것부터 큰 모순이다. 목숨 하나가 없어진다는 것과 내가 술먹는다는 것과는 별개 문제다. 그러면서도 ‘내쳐’가 죽어가는데 술을 먹다니? 하는 오죽잖은 ‘양심’이 머리를 들지만, 그것이 진정한 양심이라기보다도 관념(觀念)이란 가면(假面)이 목을 매서 끄는 것이다…(후략)…”¹⁴⁾

② 그것은 마치 종로에서 뺨맞은 놈이 행랑 뒷골에서 눈을 흘기다가 자기의 약한 것을 분개하여 보기도 하고 혼자 변명하기도 하여 보는 셈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겁겁증이 나서 몸부림을 하는 일종의 발작적 상태는 자기의 내면에 깊게 파고 들어 앉은 ‘결박된 자기’를 해방하려는 욕구가 맹렬하면 맹렬할수록 그 발작의 정도가 한층 더하였다. 말하자면 유형무형한 모든 기반, 모든 모순, 모든 계류에서 자기를 구원하여 내지 않으면 질식하겠다는 자각이 분명하면서도,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자기의 약점에 대한 분만(憤懣)과 연민과 변명이었다.

나는 참을 수 없어서 포병공창 앞으로 달아나는 전차에 뛰어올랐다. 이러한 때에 미인의 얼굴이라도 치어다보면 캠퍼주사만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었으나 나의 이지(理智)는 그것조차 조소하였다. (p.25)

인용문 ①에서 그 대자적 자아의 시선은 행위자가 이제 실행하고자 하는 행위, 즉 죽어 가는 아내를 만나러 귀국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선’이라 규정

14) 염상섭, 『만세전』(창작과비평사, 1987), p.22. 이 작품은 원래 1922년 『新生活』誌에 「墓地」라는 제목으로 3회 연재되다 同誌의 폐간과 함께 중단된 후 『만세전』으로 개명되어 1924년 『時代日報』에 58회에 걸쳐 연재, 완성되었다. 1924년 8월에 단행본으로 발간된 高麗公司본 『만세전』은 이 시대일보 연재본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 글에서 텍스트로 삼은 창작과비평사 간 『만세전』은, 작가 최후의 수정본을 원전으로 보는 관례에 의거해 해방 후 首善社에서 나온 『만세전』을 확정본으로 하여 편집되었다. 다음 인용문부터는 페이지 숫자만 명기하기로 한다.

한다. 아내라는 여자는 <죽거나 살거나 눈 하나 깜짝거리지도 않>을 수 있는, 인습적으로는 관계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나와 무관한 목숨이며, 그런 <목숨 하나가 없어진다는 것과 내가 술먹는다는 것과는 별개 문제>이다. 그런데도 그 위선적 행위를 실행하지 않을 용기를 가지지 못하는 것, 그 와중에 술집을 찾은 자신이 조금이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모두 <관념이라는 가면> 때문이다.

인용문 ②에서 행위자를 조소하는 對自的 시선은, 서술자에 의해 자신의 <이지(理智)>로 인식된다. 이인화의 정신적 질병은 <겹겹증>이다. 이 겹겹증, 달리 말하여 ‘우울증’에 대해서는 최원식이 <개인의 해방을 열렬히 염원하면서도 가족적 유대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민족의 해방을 동경하면서도 일본에 유학온 자기 존재의 근본적인 모순에서 비롯된>¹⁵⁾ 것이라고 해명한다. 자기 해방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는 자신의 약함에 대한 <분만(憤懣)과 연민과 변명>의 외적 症狀인 겹겹증을 겨우 公娼의 미인들이나 훑쳐보는 시각쾌락¹⁶⁾으로 해결하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조소하는 理智란 인용문 ①에서의 대자적 자아의 시선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바라보는 이 시선은 과연 판단 유보이며 중립적인가. 이 시선은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 시선이야말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자로서의 ‘근대적 주체의 자리에서’, 전근대의 온갖 羈絆과 矛盾과 係累에 <결박된 자기>를 조소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결코 판단 유보도 가치 중립도 아닌, 명백히 가치 편향적인 하나의 판단행위이며 하나의 포지션 정하기인 것이다.

집단적 자기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조선인으로서의 자기를 바라보는 이

15) 최원식, 위의 책, p.182

16) 시각쾌락증(scoptophilia)은, 인간의 시선 속에는 성적인 쾌락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성적인 자극이 되는 대상을 변태적으로 즐기는 증상을 가리키는 정신의학 용어로서 훑쳐보기/관음주의(voyeurism)와 연결된다. 그 극단적인 예로 포르노 상점에서 여성의 나신을 작은 구멍으로 훑쳐보는 피쇼(peep show)와 포르노 영화들이 있다.

인화의 시선은 그와 같은 시선의 위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찌할 수 없는 혐오와 수치심 때문에 언제나 굴절된다.

‘공동묘지 속에서 사니까 죽어서나 시원스런 데 가서 파묻히겠다는 것인가? 그러나 하여간에 구더기가 득시글득시글하는 무덤 속이다. 모두가 구더기다. 너도 구더기, 나도 구더기다. 그 속에서도 진화론적 모든 조건은 한 초 동안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겠지! 생존경쟁이 있고 자연도태가 있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하고 으르렁댈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구더기의 날날이 해체가 되어서 원소가 되고 흙이 되어서 내 입으로 들어가고 네 코로 들어갔다, 네나 내나 거꾸러지면 미구에 또 구더기가 되어서 원소가 되거나 흙이 될 것이다. 에잇! 똥져라! 움도 싹도 없이 스러져 버려라! 망할 대로 망해 버려라! 사태가 나든지 망해 버리든지 양단간에 끝장이 나고 보면 그중에서 혹은 조금이라도 쓸모있는 나는 놈이 생길지도 모를 것이다.....’ (pp. 132-133)

<너도 구더기, 나도 구더기>야말로 이인화의 대자적 시선이 포착한 집단 정체성이다. 조선은 거대한 공동묘지이며 조선인은 그 공동묘지에서 득시글거리는 구더기 떼다. 이인화는 똑같은 구더기이면서도 구더기인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확보하고 있기에 다른 구더기 떼와 구별된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지혜 있는 자다’ 라고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소피스트들과 구별되는 입지를 찾았다면, 이인화는 ‘자신이 구더기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으로써 구더기 떼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각에 이른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자각은 소설의 대단원에 이르러 정자에게 보내는 답장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다.

생활력을 잃은 백의(白衣)의 백성과, 백주에 횡행하는 이매망량 같은 존재가 뒤덮은 이 무덤 속에 들어앉은 나로서 어찌 ‘꽃의 서울’에 호홉하고 춤추기를 바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하나나 내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

만져주고 용기와 희망을 돋구어주는 것은 없으니, 이러다가는 이 약한 나에게 찾아올 것은 질식밖에 없을 것이외다. 그러나 그것은 장미꽃송이 속에 파묻히어 향기에 도취한 행복한 질식이 아니라, 대기(大氣)에서 절연된 무덤 속에서 화석(化石)되어 가는 구더기의 몸부림치는 질식입니다. 우선 이 질식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까.

……소학교 선생님이 ‘사벨(환도)을 차고 교단에 오르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나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외다. 고민하고 오뇌하는 사람을 존경하시고 편을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은 반갑고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성(內省)하는 고민이요 오뇌가 아니라, 발길과 채찍 밑에 부대끼면서도 숨이 죽어 엎디어 있는 거세(去勢)된 존재에게도 존경과 동정을 느끼시나요? 하도 못생겼으면 가없다가도 화가 나고 미운증이 나는 법입니다. 혹은 연민(憐憫)의 정이 있을지 모르나, 연민은 아무것도 구(救)하는 길은 못 됩니다. (p.170)

편지를 쓰는 순간에 이인화가 호출하는 자아의 이미지는 <거세된 존재>이다. <무덤 속에 들어앉은> 자기에 대하여, 그 무덤 속에서 <발길과 채찍 밑에 부대끼면서도 숨이 죽어 엎디어 있는 거세된 존재>에게 <연민은 아무 것도 구하는 길이 못> 된다는 자각은, 결국 아무 것도 연민하지 않고 떠나겠다는 의지로 연결된다. 공동체와 맺고 있는 多段한 관계를, 개인을 결박하는 羈絆이자 矛盾이며 係累라고 인식하고 그것들 중 아무 것에도 연민의 정을 품지 않고 떠나겠다는 이러한 의지는 근대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정신의 시발(始發)이다. 정호웅이 <초기 삼부작에서 『삼대』에 이르기까지의 작품들에서 일관되게 문제삼은 핵심은 당대 한국 사회를 살던 개별자로서의 ‘개인’의 문제¹⁷⁾라고 주장한 바 있거니와 젊은 염상섭의 대표작 『만세전』이야말로 그러한 개인의 의식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인화의 대자적 시선이 자기를 바라볼 때에 종종 노출시키는 수치심은,

17) 정호웅, 위의 책, p.195

자기가 벗어나려는 곳이 자신을 만들어낸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이인화에게 몸은, 자신의 몸이 연유한 여자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육체적 연원인 조선은 모두 수치스러운 곳이다. 이인화의 대자적 시선이 불러일으킨 자각, 곧 〈거세된 존재〉를 복원하여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p.171)을 향하고자 하는 의지는 그렇게 자신이 緣由한 곳으로부터의 도주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2) 타자를 향한 시선

『만세전』에 나타나는, 타자를 향한 시선의 본질적인 특성은 그것이 여행하는 자의 시선이라는 것이다. 여행하는 자는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으로 개입하는 것을 싫어한다. 원치 않는 개입이라도 하게 될까 두려운 여행자는, 그래서 종종 힐끔 보거나 훑쳐본다.

제일 순진하고 아름다운 것은 전차 속에서나 거리에서 청춘 남녀가 본능적으로 이성의 미(美)를 부산히 찾으면서도 답답히 지나치는 것일지 모른다. 이성(異性)을 꿈꾸는 순진한 청춘남녀에게는 불순한 욕심이 없다. 적어도 물질적 욕심이 없다. 아침할 필요도 없고 우월감이나 농락하려는 야심도 없고 방어도 없고 반발하려는 적대심이란 손톱만큼도 없다. 다만 미를 동경(憧憬)라고 감상(鑑賞)하며 이에 도취하고 감격한다. 더구나 그러한 생명의 연소가 영원히 흐르는 물결에 뿌러지는 월광의 은박(銀箔)같이 아무 더러운 집착 없이 순간순간에 반짝이며 스러져버리는 것이 더욱이 향기롭고 깨끗하다. 그러나 위선 없이 살지 못하리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운명이다. 그리하여 인생의 움(芽) 같은 그들도 미인의 얼굴을 똑바로 보는 법이 없다. 도적질을 해서 본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고약한 버릇이다. (pp.26-27)

위 인용문은 엿보는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생각을 토로한 부분이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가장 순진한 청춘남녀들마저 窺視라는 고약한 버릇을 가지

게 된 것은, <위선 없이 살지 못하리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위선 혹은 위악이란 자신을 假裝하는 행위이다.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않는 척 假裝하는 까닭은,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실존적 개입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관음증은, 얽히고 설킨 공동체적 관계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킴으로써 성장한 근대적 개인의 특징적 성향이다.

타자를 향한 이인화의 시선 역시 ‘注視를 통한 介入’ 보다는 ‘훑쳐보기를 통한 방조 혹은 시각쾌락’의 경우가 많다. 『만세전』 제 3장에 나오는 옥탕 장면이나 제 5장에서의 부산 市街 순례 장면, 제 6장에서의 경부선 기차여행 등에서 일관되는 주인공의 시선은 여행자의 그것이다. 물론 그것이 한편으로는 <스물 두셋쯤 된 책상도련님>(p.56) 이인화로 하여금 민족의 현실에 대하여 눈뜨게 하는 충격도 주었겠지만 이인화의 시선은 어디까지나 몇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자의 포지션에 자리하고 있음을 이 글은 주목한다.

<순박하고 순진한> <기습(氣習)을 가지고는 있지만 <무지>하고 <무질서>(p.27)한 무산계급은 지식인 이인화의 타자다. 그 <하층사회의 아귀당들>(p.70)에 대한 이인화의 혐오는 거의 본능적인 것이다. 도무지 <잇살을 어우르기가 싫다>(p.70)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적실한 표현일 것이다.

全人的 소통이 불가능한 父兄은, 전근대적 가족관계를 부정하는 개인주의자 이인화의 타자다. <그들의 세계와 자기의 세계에는 통로가 전연히 두절된 것을 발견>(p.95)하고 그것이 <마치 무덤 속과 무덤 밖이 판연히 다른 판세상임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게>(p.95) 된 이인화는 <그후부터는 부자나 형제로서 할 말 이외에는, 그리고 학비 이야기 이외에는 아무 말도 입을 벌리지 않기로 결심>(p.95)한 터이다.

문명의 기원(origin)으로서의 서구와 그 기원을 충실히 모방하는 일본에 대한 이인화의 시선은, 무덤 속의 구더기 떼라는 스스로의 집단 정체성에 결부되어 콤플렉스에 기인한 증오심을 어쩔 수 없이 동반하고는 있으며, 근본적으로 憧憬이다.

① 흑시는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상은 떠들썩하며 무슨 새로운 희망에 타오르는 것 같건마는, 조선만은 잠잠히 쥐죽은 듯이 들어엎디어서 그저 파먹기나 하며 버둥버둥 자빠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무거운 뚜껑이 팍 덮여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p. 162)

② <구주(歐洲)의 천지는 그 참혹한 살육의 피비린내가 걷히고 휴전조약이 성립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부질없는 총칼을 거두고 제법 인류의 신생(新生)을 생각하려는 것 같습니다>(p.171)

인용문 ①에서 보이듯 歐洲와 조선은 <새로운 희망> 對 <무거운 뚜껑이 팍 덮여 있는 것 같>은 답답함으로 鮮然히 대비된다. 무거운 뚜껑이란 『만세전』 전편에 걸쳐 누차 언급되는 무덤의 비유를 생각하건대 아마도 관 뚜껑일 것이다. 인용문 ②에서도 볼 수 있듯이 歐洲의 천지는 新生을 생각하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여전히 무덤 속, 자궁 속에서 깨어날 줄 모르는 조선과 대비된다.

잇살을 어우르지 않거나, 형식적인 말 이외에는 아예 입을 다물거나, 자기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증오하면서 더욱 동경하는 태도에 공통된 시선은,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거부하거나 포기한 여행자의 그것이다. 『만세전』에서 시선을 운반하는 매체로 주체의 몸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기차, 즉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일정한 선로를 따라 움직이는 기차는 근대적 시선의 여행자적·관음주의적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물일 것이다.

3. 여성 타자를 대하는 근대적 주체의 태도

이인화가 <반성과 모색을 거쳐 최종적으로 순종적인 아내를 긍정하고 자유분방한 ‘우리’를 부정함으로써 전통적 윤리를 중시하고 있음과, 아내에의 애

정을 확인하고 '정자'와의 애정을 단념함으로써 민족 이념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⁸⁾는 식의 해석이 지나치게 피상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 장에서는 근대적 주체의 시선이 여성 타자와 맺는 관계를 다시 검토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 이인화의 시선은 여행자의 시선으로서 관계에 대한 책임성을 거세한 시선이었다. <죽여도 내 손으로 죽인다>(p.139)는 專制的 가부장과 <어떻든 나는 모르니까>(p.153)로 발뺌하는 개인주의자 이인화는, 며느리 혹은 아내라는 이름으로 관계 맺고 있는 상대에 대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과 책임감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실상 닮은꼴이다. 이인화는 아내, 을라, 정자 등 여자들에 대해서는 물론이요 자식에 대해서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핏덩어리 어린 자식을 두고 <요행히 잘 자라면 김천 형님이 데려가거나, 만일 김천 형님이 아들을 낳게 되면 큰집 형님이 데려가는 대신에, 내 앞으로 오는 것이 다소간 있을 것이니, 그 반분은 양육비와 교육지로 제공하되 장성할 때까지 김천 형님이 보관하기로 김천 형님과만 내약을 하여>(p.162) 든, 그의 처리 방식은 지극히 냉정하고 합리적이면서 책임 회피적인 것이다. 그것은, <간단한 일이지마는 이렇게 수편하게 끝이 나니까, 한시름 잊은 것 같고 새삼스럽게 자유로운 천지에 뛰어나온 것 같았다>(p.162)는 언급이 보여주듯 계약으로 한 생명에 대한 실존적 책임감을 벗어버리는 행위인 것이다.

이인화처럼 <그 머릿살 아픈 것을 어떻게 조처를 하나 하는 생각이 앞을>(p.32) 서거나 <깊게 끌려 들어갔다 자기 생활에 파탄을 일으키고 공연한 고생을 사서 할까 보아 경계를> 먼저 하는 사람은 사랑의 기술이 없는 사람이다. 앞선 장에서 행위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理智라고 파악한 바 있거니와 <계집애하고 키스를 하면서도 침맛을 아는>(p.34), 그럼으로써 사랑에 몰입하지 못하게 하는 理智란, 근대적 주체의 시선 과잉이 빚어낸 것이다.

18) 박종홍, 「염상섭의 초기 소설, 개성의 자각과 생활의 발전」, 문학사와 비평 연구회 편, 앞의 책, p. 175

‘과연 지금 나는 정자를 내 아내에게 대하는 것처럼 냉연히 내버려둘 수는 없으나,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니만큼 또 다른 의미로 정자를 사랑할 수는 없다. 결국 나는 한 여자도 사랑하지 못할 위인이다.’

이같은 생각을 할 제 나는 급작스레 고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p.12)

사랑이란 고도의 친밀성의 영역이다. 인간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친밀성의 가장 근원적인 형태는 신체와 감정을 온전히 교환하는 ‘어머니 속의 존재(being-in-the mother)’에 대한 기억이다. 그리고 친밀성을 유지, 향상시키는 데에는 시각이 중요해지는 외디푸스기 이후의 체험보다 前외디푸스기의 촉각(touch)과 청각의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페미니스트 루스 이리가라이는, 사랑하는 주체는 모두 상대방에게 여성을 주라고 말한다.¹⁹⁾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나는 한 여자도 사랑하지 못할 위인이다>라고 하는 이인화의 고백이 가지는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진다.

영리한 계집애요 동정할 만한, 카페의 웨이트레스로는 가까운 계집애다라고 생각은 하였어도 그 이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정열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같은 값이면 정자를 찾아가서 술을 먹는 것이요, 만나면 귀여워 해줄 뿐이다. 원래가 이지적·타산적(打算的)으로 생긴 나는 일시 손을 대었다가 움칠 수도 없고 내칠 수도 없게 되는 때에는 그 머릿살 아픈 것을 어떻게 조처를 하나 하는 생각이 앞을 서는 동시에, 무슨 민족적 감정의 구렁이가 사이에 가로놓인 것은 아니라도 이왕 외국 계집애를 얻어 가지고 아깝게 스러져 가려는 청춘을 향락하려면 자기에게 맞는 타입을 구하겠다는 몽롱한 생각도 없지 않아서 그리하였다. (p.32)

사회적으로 사랑의 행위에 뒤따르는 것은 책임이다. 이인화는 그러한 책임을 지기 싫어한다. 그것은 여행자 이인화의 정치적 성향이면서 작가 염상

19) Luce Irigaray, “sexual difference”, ed. by Toril Moi, French Feminist Thought, Basil Blackwell, 1987, pp.118~130

섭의 정치적 성향이기도 하다. '되어 가는 대로 두고보겠다,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의 정치성이란 그 근본에서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민족의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그 나름대로 진보적 시각을 표출했던 「만세전」의 정치 감각이 이후의 작품들에서 점점 더 회고적·보수적으로 바뀌어 가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지적·타산적(打算的)으로 생긴〉(p.32) 이인화가 그 이지와 타산을 끝없이 작동시킴으로써 구하는 포지션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자리, 욕을 가장 덜 먹는 자리이다. 그 자리는 이후 「삼대」를 통하여 염상섭이 선택한 정치적 입지인 중도자·동정자(sympathizer)와 그대로 연결된다.

카페 걸 靜子는, 연애와 가출, 실연, 카페 생활, 각성을 통하여 진리 탐구의 길에 들어서는 일본 신여성이다. 정자가 「만세전」에 등장하는 다른 여자들과 다른 점은, 〈인격적 자각〉(p.18)이라는 근대적 개인의 특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녀가 〈자기의 생활을 자율(自律)하여 나갈〉(p.28)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붙들어주고 싶〉(p.34)지만 〈그러나 그것은 역시 공상〉(p.34)일 뿐이다. 그의 책임감 혹은 죄책감은 공상 속에서만 일어나거나 학비 후원을 하는 등의 '적당한' 선에서 그치는 것이다. 정자에게 관심이 있으면서도 산전수전 다 겪어 푸근푸근한 P꼬에게 흥미를 느끼고 〈어느 때든지 두 계집애를 다 데리고 이야기하지 않는 때가 없었〉(p.20)던 까닭 또한 여자와의 전면적인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이인화의 심적 구조에 연유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인화가 여자와 맺는 관계의 특성은, 여자를 시각쾌락과 유희의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별일 있었던 것은 아니요, 그저 만나서 마시고 먹고 노닥거리는 재미로이었지마는 펍 인상에 남았던〉(p.38) 고베의 레스토랑 웨이트레스에 대한 그의 추억, 김천에서 서울 가는 경부선에서 한 객차에 탄, 〈대구에서 탔는 듯싶은 기생 같은 젊은 여자〉(p.113)에 대하여 가지는 반가움과 연민이 뒤섞인 그의 관심은 그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작은 삽화들이다.

乙羅는, 여자에 대한 이인화의 태도가 급변하는 사건에 하나의 결정적 동기가 된 여자다. 물론 그것은 올라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이인화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사건일 뿐이다. 이인화는 <누가 올라란 을자만 물어보아도 얼굴이 발개지던 사람>(p.149)에서 올라 앞에서 농담조로 情死 이야기를 하거나 <짓곳이 종형수에게 올라의 이야기를> 꺼내고 병화 앞에서 <올라의 이야기를 태연히 하고 앉았는 것>(p. 149)으로 바뀌었다. 그 변화의 폭이 얼마나 대단한가는, <참 변한다 변한다 하니 인화(寅華)씨 같이 변하신 양반이 어디 계세요>(p.42)라는 올라의 말과 <올라가 하던 말과 똑같은 소리를 하>(p.149)는 병화에 의해서 암시된다. 올라에 대한 이인화의 환멸이란, 작품 속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고 있지만, 낭만적 사랑의 한 이상형으로서의 올라에게 품었던 환상이 후원자의 존재로 말미암아 깨어진 데서 발생한 것이다.

사실 근대 초기의 가난한 여학생들은 경제적 후원자를 가진 경우가 많았다. 순수한 차원에서의 후원에서 섹슈얼리티 제공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의 후원, 그런 여러 가지 동기들이 착종된 후원 등 여학생에 대한 경제적 후원의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염상섭의 「삼대」에 등장하는 홍경애, 김동인의 「김연실전」의 주인공 김연실 등은 경제적 후원자를 가진 여학생의 한 모델을 보여주는 캐릭터들이다. 이는, 물론 똑같은 경우가 아니기는 하나 일본 신여성에게 후원금을 부치는, 그리고 경멸해 마지않는 형에게 학비를 받아쓰는 이인화 자신의 모습과 겹쳐 이인화가 자기 자신과 조선인 신여성에 대하여 각기 다른 잣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정자에 대한 이인화의 감정이, 올라와 병화의 그것보다 우월한 것이라고 貶下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또한 사상이 맞지 않아 말하는 것도 꺼리는 형에게 학비만 알뜰히 받아 챙기는 이인화의 태도가 여학교 선배의 남편에게서, 그 선배가 분명히 인지하고 용납하는 범위에서 후원 받는 올라의 태도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다시 말하여 이인화는 자기의 포지션에서 여자를 가치평가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두고 가치중립적 어른의 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인화의 시선이 敬遠하거나 輕蔑하는 올라가 올라 그 자체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서사적 관점에 호출된 독자들이 올라를, 그리고 올라로 대표되는 조선인 신여성을 ‘있는 그대로의 실체’인 양 인식하게 된다는 점일 것이다. 또한 올라에 대한 이인화의 환멸과 그로 인한 냉소주의가, 기존 연구에서 흔히 말해지고 있는 것처럼 올라라는 신여성의 개방성과 분방함에서 연유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 또한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인화의 병적 냉소주의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은, 혹은 사랑할 수 없었던 그의 個人化에의 강박적 지향이 빚어낸 것이다. 사랑을 통한 전면적인 관계 맺기란, ‘自律的 개인’으로 성장하려는 이인화에게 거추장스럽고 위험하기까지 한 係累를 스스로 창출하는 행위이다. 살로메(Lou Andreas-Salomé)의 통찰을 빌자면, <자신이 이상화한 것을 통해 보고 자기 연인의 단점을 덮어줌으로써만 외로움은 끝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에 <일상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에 대해 거리를 두는 것만이 다시 외로워지는 것을 늦출 수 있는 유일한 치유책>이고, <바로 이것이 사랑의 낭만적·현실적 핵심이며, 실로 사랑의 발명품이다.>²⁰⁾ 사랑을 발명하는 데 있어서의 이인화의 무능력이야말로 그로 하여금 여자를 <우롱>, <농락>, <희롱>(p.33)의 대상으로 한정시키게 하는 원인인 것이다.

이제 이인화가 구여성을 대하는 태도를 보자. 『만세전』에 등장하는 구여성들은, 정자·올라 등과의 관계처럼 이인화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파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그에게 강제적으로 주어진 성격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인화로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인물들이다. 특히 아내와 어머니는, 근대적 개인으로 성장하려는 이인화에게 그로부터 도피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끝없이 생성시키는 근원적인 係累이다.

20) 올리히 벡, 엘리자베트 벡-게른샤임 공저, 강수영 외 역,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새물결, 1999), p.326

그러나 더하다는 날도 그 모양이요 낫다는 날도 제택이다. 또 며칠 음산한 날이 계속하였다.

‘어서 끝장이나 났으면!’

하는 생각이 불쑥 날 때에는, 정자의 생각이 반드시 뒤미처 머리에 떠올라왔다.

‘지금쯤 무얼 하고 있누? 경도로나 가지 않았나?’

하고 엽서를 띄운 것은, 서울 온 지 일 주일이나 지난 뒤이었다.

정자에게 엽서를 부치던 날 저녁 때에, 올라는 그 동안 나왔나? 하고 인사 겸 병화(炳華)의 집을 찾아갔다. (pp.144-145)

위 인용문에서처럼 아내가 죽기 전에 이인화가 가지는 감정은 〈어서 끝장이나 났으면!〉일 뿐이다.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의, 원치 않은 형식적 관계에 대한 질식할 것 같은 부담감은 〈반드시 뒤미처 머리에〉 떠오르는 정자에 대한 생각으로 轉置되어 드러난다. 그리고 정자에게 몰입하지 못하는, 혹은 몰입하지 않게 하는 이인화의 理智는 또 다시 올라 쪽으로 시선을 분산시킨다.

시난고난하던 아내가 기어이 죽은 후 이인화는 〈살아 있을 때에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던 가엾은 생각이, 동정하는 마음이 유연히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것을〉(p.163) 깨닫는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독백은 〈에잇, 하여튼 한시바빠 빠져 달아나자!〉(p.163)이다. 죽어 가는 아내란 죽어 가는 조선이며, 죽어 가는 묘지이자 자궁이 아니던가. 자울과 해방이라는 근대적 보편자의 레토릭에 이르기 위해서는, 죽어 가는 아내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고 이인화는 반드시 그녀를 떠나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 저것 실제 문제를 생각하면 그래도 아내가 더 살아주었더라면 내 몸 하나는 편하였던 걸.....〉(p. 169) 하는 정도의 알량한 아쉬움조차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감정일 뿐이다. 아내가 살아 있는 한 이인화는 아마도 똑같이 그녀로부터 도망갈 궁리를 멈추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자에게 보내는 답장에서 이인화가 거듭 다짐하는, '무덤을 벗어나는 행위'의 정신분석학적 상징성은 무엇인가. 이성적 주체를 질식시키는 무덤이란 '자궁'으로 환치될 수 있는 메타포이다. 어머니에 대한 욕망에서 발생하는 거세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배제하고 아버지와 동일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사비나 로비본드(Sabina Lovibond)는, <서구 철학은 출발에서부터 기본적으로 하나의 솟아 있는, 인류의 정상적이고도 완전한 대표로서의 남성의 전망을 드러내기 위해 상상의 틀을 하나씩 고안해 왔>는데, 가령 <플라톤 옹호자는 자궁과 같은 '상식'의 동굴에서 지식의 밝은 대낮으로 나서고 있>으며, <헤겔의 시민은 여성이 이끌어온 가정의 어둡고 사적인 세계를 뒤로 하고 떠남으로써 성숙성을 확보>한다고 말한다. 요컨대 <자연으로부터 자유로, 또는 타율로부터 자율로의 이행은 남성이 그의 삶을 시작했던 피난처인 여성적인 환경으로부터 도주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왔다>²¹⁾는 것이다.

<해마다 오면 어머니의 울고 맞아주는 것이 귀찮다>(p.136)고 느끼고, <죽어가면서도 자식 생각을 하는>(p.138) 아내의 눈물겨운 사랑에 대하여 이지적 冷然함으로 일관하는 이인화는,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생명을 천대하고 죽음의 문화를 경배하는 전형적인 근대주의자다.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사랑과 새 생명에 대한 아내의 사랑이야말로, <허위(虛僞)를 되풀이하여 가면서 비굴한 타협(妥協)이 아니면 옆사람을 자기에게 동화(同化)시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기적 동물>(p.27)들이 벌이는 이항대립적 주체/타자의 죽고 죽이는 투쟁이 아니라 주체와 주체가 간주관적(intersubjective)으로 만날 수 있는 액체성(fluidity)의 공간인 것이다. 그런데도 호출된 독자는, 이러한 구여성들의 눈물과 사랑은 흔해 빠지고 값싼 것으로 치부하고, 형사들에게 시달린 뒤 연락선 갑판에 서서 <점점 멀리 흐려가는 불빛>(p.66)을 보며 이인화가 흘리는 <뜨끈뜨끈한 눈물>(p.66)에 대해서는 <얼

21) 사비나 로비본드, 이창순·정진성 편역,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만남』(한울아카데미, 1997), p. 177

마나 진실한 형상²²⁾이라고 감동한다. 더구나 여성 독자의 경우, 데카르트적 예고에 호출된 여성 독자는 다른 존재에게 목숨과 젖을 주는 자신의 몸,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아를 構造하는 자신의 심리적 성향에 대하여 열등의식을 느끼기 쉽다. 이인화는 자신을 얽어매는 계루를 탈출할 수 있지만, 여성은 자신의 몸 자체가 계루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성을 배제한 데카르트적 현존을 가정하기 위해서는 남자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뒤틀린 경로를 거쳐야 한다.

근대를 산 구여성들의 구술자서전²³⁾에서 발견되곤 하는, 고부 관계에 대한 고정관념과는 상치되는 증언은, 근대의 시간 속에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안채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의지하며 힘겨운 삶과 곤고한 세월을 견뎠다는 것인데, 「만세전」의 고부 또한 다르지 않다. 사실 고부간의 권력투쟁도 안채에 안정적인 권력이 있을 때에야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근대는 다만 새로운 여성이 출현해서뿐만 아니라 이인화의 아내와 어머니 같은 구여성들에게는 자존(自尊)의 근거를 뒤흔든다는 점에서 가혹한 시간이었다. 똑같이 무책임한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죽어 가는 며느리를 위해 <혼자 애를 쓰시>(p.144)고, <한숨을 쉬시고>(p.155), <불쌍하다고는 우시고 우시고>(p.158), 그 며느리가 죽은 다음에는 <열다섯부터 앞에서 키운 정> 때문에 <집이 한구석 텅 빈 것 같은>(p.167) 허전함을 느끼는 유일한 사람이 어머니인 것은, 「만세전」이 非意圖的으로 이루어낸 구여성에 관한 슬픈 리얼리티라고 하겠다.

22) 최원식, 위의 책, p.186

23) 도서출판 뿌리깊은 나무에서 펴낸 민중자서전 시리즈 중에는 민중여성의 구술을 기록한 「베도 술한 베 짜고 밭도 술한 밭 매고」, 「이부자리 피이 놓고 암만 바래도 안 와」, 「두령바위에 흐르는 눈물」, 「여보, 우리는 뒷간밖에 갔다운 데가 없어」, 「이 짠한 사람!」 내가 나보고 그라요」, 「이 “계동 마님”이 먹은 여든 살」 등이 있다.

4. 진리에의 의지

니체는 근대인의 진리 추구 의지가 소크라테스 이래로 계속되어온 계몽 정신의 산물이자 생명을 否定하는 의지임을 천명한다. 인용하자면, <무신론-이성과 과학에 의한 인간의 자연 지배가 초래한 결과-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의미를 인간에게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재앙이다. 진리는 발견되지 않을 거라는 걸 말해주면서도 끝없이 진리를 찾아 나서게 만드는 인식의 구조만을 가진 채, 인간은 진리 없이 빈손으로 남게 되었다. 그것의 결과는 마비이고 권태여서 인간은 곳곳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목격하며 의미없는 서류를 산더미처럼 축적한다. 근대 사회에서 진리에의 의지(will to truth)는 무력한 인간, 생각하기 위하여 생각하는 동물을 만들었다(the esteeming animal to esteem).>²⁴⁾

이인화와 같은 인간형을 배출하는 곳은, 근대적 진리 탐구의 場인 학교이다. 제도 교육의 공간으로서의 학교는 전근대에도 있었지만, 근대의 교육제도인 학교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다. 조선에 이식된 근대의 학교는 명백히 서구적 진리를 학습하고 추구하는, 근대주의 이데올로기의 기지였다. 학교에서 배우는 진리에는, 이미 밝혀진 진리들도 있었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사유의 틀 자체도 포함되어 있었다. <부정적인 방법(추적을 통해 내적 모순들을 제거해내는 방법)을 철저히 적용하여 긍정적인 결과(더 이상 수정될 것이 없는 완전하게 확고한 믿음의 체계)를 생성해낸다고 하는 변증법적 사고의 과정>²⁵⁾이 그것이였다. 변증법을 통해 조선인 학생들, 아직도 어두운 '동굴' 속에서 나오지 못한 '타자의 타자'(the other of the other)가 도달해야 할, 스스로 존재하는 '형상(Idea)' 으로서의 '동일자(the same)' 는 서구였다.

24) Nancy S. Love, *Marx, Nietzsche, and Modern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p.4

25) 이창순·정진성 편역,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만남』(한울아카데미, 1997), p.174

일본은 그런 의미에서는 서구의 모방자로서의 '세계', 곧 '동일자의 타자 (the other of the same)'²⁶⁾였다.

김윤식에 의해 <현해탄 콤플렉스>²⁷⁾로 명명되기도 한, 우리 근대문학 작가들의 동경에 대한 매혹은 서구적 근대의 출장소로서의 동경에 대한 매혹이기도 했다.

서구적 근대의 한 특징으로서의 '진리에의 의지'는 『만세전』에서는 無知의 무덤에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新生에의 의지로 나타난다.

레스토랑에서의 <کمکم하고 끈죽끈죽한 생활>(p.165)에서 벗어나 同志社大學 여자부에 입학할 예정인 정자의 <오늘의 新生(新生)>(p.169)과 조선이라는 구더기 끓는 무덤 속에서 벗어나 <가쁜한 몸>(p.171)이 되려는 이인화의 新生은, <그 참혹한 살육의 피비린내>에서 벗어나 문명의 비약을 예비하는 <인류의 新生(新生)>(p.171)과 동일한 궤도에 있다. 이인화와 정자의 길은 현해탄 너머, 그리고 대서양 저편에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진리>²⁸⁾를 향한 탐색의 길인 것이다.

우리 문학의 도(徒)는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을 찾아가고, 이것을 세우는 것이 그 본령인가 합니다. 우리의 교유, 우리의 우정이 이것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이 나라 백성의, 그리고 당신의 동포의, 진실된 생활을 찾아나가는 자각과 발분을 위하여 싸우는 신념(信念) 없이는 우리의 우정도 헛소리입니다.…… (p.171)

26) 플라톤의 '동굴의 신화'를 재해석하여 동굴/세계/형상의 삼중 구조를 동일자/동일자의 타자/타자의 타자로 바꾼 사람은 루스 이리가라이다. Margaret Whitford, "the same, the semblance, the other", Luce Irigaray: Philosophy in the Feminine, Routledge, 1991, pp.101~122 참조.

27) 김윤식, 『「염상섭 연구」가 서 있는 자리』,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편, 위의 책, p.10』

28) 임화의 시 「현해탄」에는 <예술, 학문, 움직일 수 없는 진리…… /그의 꿈꾸는 사상이 높다랗게 굽이치는 동경(東京)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김윤식, 위의 글 p.10에서 재인용.

우리 <문학의(徒)>란 말할 것도 없이 정자와 이인화 자신처럼 학교에서 공부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 나라 백성> 그리고 <당신의 동포>처럼 무지몽매한 사람들과 對別되는 우월한 존재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그들에 대한 啓蒙의 사명을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만세전』의 대단원이 전하는 메시지이다. 정자와 이인화 같은 문학의 徒의 본령이라는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을 찾아가고, 이것을 세우는 것>, 그리고 동포의 <진실된 생활을 찾아나가는 자각과 발분을 위하여 싸우는 신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필자가 『만세전』을 통하여 파악한 바로는, 그것은 아내의 죽음과 생명의 배제이다.

이인화가 무덤 속에서 빠져나가 찾고자 하는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이란 아내의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과 결코 일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인화의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이 마치 조선 사람 모두(혹은 인류)의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과 일치하는 것처럼, 그러한 생활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인화의 여정이 마치 조선 사람 모두(혹은 인류)의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을 위해서인 것처럼 이 작품의 서사적 관점은 독자를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을 추구하는 남성 보편자'의 정체성 속으로 호출한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여성 혐오(misogyny)에 기반한 호출임에도.

근대의 진리에의 의지는 생명을 낳고 기르는 몸에 대한 부정과 貶毀이자, 고유한(혹은 자기에게 소속된(proper)) 자아의 경계를 넘어 상대에게 흘러가는 사랑의 능력을 상실하는 의지이다. 근대의 新生이 본질적으로 생명과 여성에 대한 천대 위에서 이루어짐으로 해서 끝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근대인의 삶은 <진리 없이 빈손으로 남게> 된다. <여자란 진리의 비진리성에 대한 이름>²⁹⁾이라는 해체주의자 J. 데리다의 통찰은 이런 맥락에서 빛을 발한다.

■ 필자 : 인하대 강사

29) J. Derrida, Eperon: les styles de Nietzsche, Paris: Flammarion, 1978, p.39. 김상환, 「니체와 데리다: 새로운 해석학의 탄생 2」, 『니체가 뒤흔든 철학 100년』(민음사, 2000), p.354에서 재인용.

참고문헌

- 염상섭, 『만세전』, 창작과비평사, 1987
- 염상섭, 『廉想涉全集』, 민음사, 1987
- 팸 모리스,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7
-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편, 『염상섭 문학의 재조명』, 새미, 1998
- 金允植, 『廉想變』, 文學과知性社, 1995
- 김종균, 『염상섭: 근대 리얼리즘의 거장』, 동아일보사, 1995
- 프리드리히 니체, 김대경 역, 『비극의 탄생』, 청하, 1996
- 김상환 외, 『니체가 뒤흔든 철학 100년』, 민음사, 2000
- 조주현,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2000
- 이창순 · 정진성 편역,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만남』, 한울아카데미, 1997
- Cixous, Helene, ed. by Elaine Marks and Isabelle de Courtivron, *New french Feminisms*,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1980
- Irigaray, Luce, ed. by Toril Moi, *French Feminist Thought*, Basil Blackwell, 1987
- Love, Nancy S., *Marx, Nietzsche, and Modern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 Whitford, Margaret, *Luce Irigaray: Philosophy in the Feminine*, Routledge, 1991

Abstract

The others captured by the vision of a modern subject
..... in the case of *before the Samil Independence Movement* (萬歲前)
by Yeom Sang-Seop

Park Jeong-Ae

This thesis is a consequence that I reread as a “resisting reader” *Before the Samil*[1919] *Independence Movement* (萬歲前) by Yeom Sang-Seop which is estimated a masterpiece in our history of modern literature.

A mass of criticism that *Before the Samil Independence Movement* is a masterpiece which accomplished great genuineness as a voyage for discovery of young intelligentsia in colony thinking self-reflectively has given the novel authenticity of a realistic canon. This paper focused its attention not on the colonial reality discovered by the hero and the aspects of his awakening but on the vision of an egoistic male as modern universal one covering the journey. All the vision differs from one another by positioning. *Before the Samil Independence Movement* can be one of the great ‘modern literature’ because in that novel ‘modern individual’ looks through the world with the line of modern vision and writes the result of looking, of which partiality I intend to show. The vision can be divided into two kinds, that is, towards ‘self’ and towards ‘the other’. The former is never a reservation of judgement or neutrality of value but a clearly partial estimating and positioning act. And the essential idiosyncrasy of latter is the vision castrating the responsibility of relations with the others as one of voyager. Lee In-Hwa, the hero of *Before the Samil Independence Movement* is not willing to be responsible for the

women of wife, Eula(乙羅), Sizco(靜子) etc. and even the child of his own.

‘Will to truth’ as a mark of western modernism is changed into ‘will to rebirth’ from the tomb of ignorance in Before the Samil Independence Movement. For literary men like Lee In-Hwa or Sizco(靜子) to need at any cost (to find free genuine life and to affirm it) is the death of wife and denial of will to life. While Lee’s free genuine life escaped from the tomb never coincides with the free genuine life of his wife, the narrative standpoint of this work calls readers into the identity of male universality that attempts to unite Lee’s one with the national/universal one. And the interpellation is essentially founded on misogyny. Modern rebirth based on devaluation of life and females leaves continually truth-seeking modern men empty-handed without truth. So the insight of J. Derrida emits light here who speaks that ‘woman’ is the sign indicating truth is non-truth.